

국어 영역

[6월 모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평사의 나그네	有客清平寺
봄 산을 마음대로 노니네	春山任意遊
고요한 외로운 탑에 산새 지저귀고	鳥啼孤塔靜
흐르는 작은 내에 꽃잎 떨어지네	花落小溪流
3 좋은 나물은 때 알아 돌아나고	佳菜知時秀
향기로운 버섯은 비 맞아 부드럽네	香菌過雨柔
1 지 읊조리며 신선 골짜기 들어서니	行吟入仙洞
나의 백 년 근심 사라지네	消我百年愁

- 김시습, 「유객(有客)」-

(나)

도연명(陶淵明) 죽은 후에 또 연명(淵明)이 나타나
 밤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시고
 돌아와 수졸전원(守拙田園)이야 그와 내가 다르라 <제1곡>

삼공(三公)이 귀하다 한들 이 강산과 바깥싸나
 조각배에 달을 신고 다섯대 홀던질 때
 이 몸이 이 청흥(淸興) 가지고 만호후*인들 부러우라 <제8곡>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 다 주어 내던지고
 필마(匹馬) 추풍에 채를 쳐 돌아오니
 이무리 매인 새 놓였다고 이대도록 시원하랴 <제10곡>

세버들 가지 꺾어 남은 고기 꺾어 들고
 주가(酒家)를 찾으려 남은 다리 건너가니
 은 골에 살구꽃 저 쌓이니 갈 길 몰라 하노라 <제15곡>

최 행수 숙달입 하세 조 동간 꽃달입 하세
달 짝 계 짝 술 버 점 실은 날 시키소
 매일에 이렇게 지내면 무슨 시름 있으랴 <제17곡>
 - 김광옥, 「율리유곡(栗里遺曲)」-

*수졸전원: 전원에서 분수를 지키며 소박하게 살아감.
 *만호후: 재력과 권력을 겸비한 세도가.

(다)

오십이 넘은 판교(板橋)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청수(淸瘦)한 한 폭 대를 그리어 추풍강상(秋風江上)에
 낚대나 만들까 보다.”
 ㉠ 궁핍을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느니보다

(가)-1. 화자는 누구인가?

“나”

(가)-2. 나그네의 동선을 정리해보자

① → 산, 내, 남문, 마실
 골짜기 → 큰길, 허름.

(나)의 곡별로 마지막 행의 감정을 정리하고
 왜 그 감정을 느꼈는지도 정리하자

why 수졸전원 (도연명의 장미)
 나 = 도연명 : 내 궁핍이 허.

why 강산과 바깥
 나 = 흥취 허고.

why ^숙달입 (자연의) 포만감
 숙시완락.

why ^인죽함
 괴로움, 장안에서 어원을.

why 자연속에서 음식 먹음.
 시름 없음.

국어 영역

모든 속사(俗事)를 버리고 표연히 강상(江上)의 어객(漁客)이 되는 것이 운치 있는 생활이기도 하려니와 얼마나 자유를 사랑 하는 청고(淸高)한 마음이나, 고기를 낚는 취미도 실로 삼매경에 몰입할 수 있는 좋은 놀음이다.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에서 흐느적거리는 낚싯대를 척 휘어잡고 바늘에 미끼를 물린다. 가장자리에는 물이끼들이 팍 영겼을 뿐 아니라 고기도 송사리 떼밖에 오지 않는지라, 팔 힘 자라는 대로 낚싯줄이 허(許)하는 대로 되도록 멀리 낚시를 던져 조금이라도 큰 고기를 잡을 양으로 한껏 내던져도 본다. 풍당 물결이 여울처럼 흔들리고 나면 거울 같은 수면에 찌만이 외롭고 슬프게 곧추서 있다.

㉠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알력과 모략과 시기와 저주로 팍 찬 이 풍진(風塵) 세상을 등 뒤로 두고 서로 무언의 우정을 교환한다.

내 모든 정열을 오로지 외로이 떠 있는 한 점 찌에 기울이고 있노라면, 가다가 ㉡ 별안간 이 한 점 찌는 술 취한 늙처럼 까딱 까딱 흔들리기 시작한다.

‘고기가 왔구나!’

다음 순간, 찌는 물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간다.

‘옳다, 큰 놈이 물린 게로군.’

잡아당길 때 무거운 것을 생각하면서 배꼽에 힘을 잔뜩 주고 행어나 낚대를 놓칠세라 두 손으로 팍 붙잡고 번쩍 치켜 올리면, 허허 이런 기막힌 일도 있을까. 큰 고기는커녕 [A] 어떤 때는 방계란 놈이 달려 나오고, 어떤 때는 개구리란 놈이 발버둥을 치는 수가 많다. 하면 되는 줄만 알았던 낚시질도 간대로 우리 따위까지 단번에 되란 법은 없나 보다.

세상일이란 모조리 그러한 것이리라마는 아무리 내 재주가 서툴다기로서니 개구리나 방계란 놈들도 염치가 있지, 속어에 이르기를 승어가 뛰니 망둥이도 뿔다는 셈으로 나는 나대로 제법 강상의 어객인 양하고 나섰는 판에, 그래도 [B] 그럴 듯 미끈한 잉어까지야 못 물린다손 치더라도 고기도 체면은 알 법한지라, 하다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얼토당토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제가 체체 하고 가다듬은 내 마음을 더럽힐 줄 어찌 알았으랴.

㉢ 세상이 하 뒤숭숭하니 고요히 서재나 지키어 한묵(翰墨)*의 유희(遊戱)로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그렇다고 거리로 나가 성격 파산자처럼 공연스레 왔다 갔다 하기도 부질없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모조리 짐사 틀리는 소식밖엔 없어 그래도 죄 없는 곳은 내 서재니라 하여 며칠만 틀어박혀 있으면 그만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온다.

위진(魏晉) 간에 심산벽촌(深山僻村)에 은거하여 청담(淸談)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욱을 한 적도 있었으나, ㉣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고인(古人)의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김용준, 『조어삼매(釣魚三昧)』 -

* 한묵: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다)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하고 은거하여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글쓴이의 심정을 나타 낸 작품이다. 글쓴이는 뒤숭숭한 시절을 살아 가는 답답함과 율화를 낚시를 통해 잊고자 하는데 이 낚시질조차 쉽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또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은거했던 옛사람들의 심정에 동감하게 된다고 하면서 혼탁하고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주제} 불의한 시대를 낚시로 잊고자 하는 지식인의 마음

국어 영역

2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제8곡>에서는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자가 즐기는 흥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10곡>에서는 화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바탕으로 자연물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제15곡>에서는 다양한 행위를 연속적으로 나열하여 화자가 누리는 생활의 일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제17곡>에서는 청자를 호명하며 즐거움을 함께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24. 문맥을 고려하여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활과 대비되는 낚시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낚시 도구와 글쓴이의 관계를 설정하여 낚시에 몰입하는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 ③ ㉢: 낚시에 집중했던 글쓴이의 기다림과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낚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서, 글쓴이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 준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⑤ ㉤: 낚시를 해 본 후 달라진 글쓴이의 마음가짐으로서,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5. (나)와 (다)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도연명'과 (다)의 '판교'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이다.
- ② (나)의 '삼공'과 (다)의 '성격 파산자'는 모두 세속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을 가리킨다.
- ③ (나)의 '제버들 가지'와 (다)의 '청수한 한 폭 대'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④ (나)의 '고기'와 (다)의 '송사리'는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비유한 표현이다.
- ⑤ (나)의 '시름'과 (다)의 '육'은 각각 화자와 글쓴이가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26.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이감은 [B]에서 인생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확장된다.
- ② [A]에 나타난 글쓴이의 무력감은 [B]에서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을 통해 해소된다.
- ③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실망감은 [B]에서 자신의 손상된 체면에 대한 한탄으로 이어진다.
- ④ [A]에 나타난 글쓴이의 상실감은 [B]에서 새로운 이상을 품도록 만드는 계기로 작용한다.
- ⑤ [A]에 나타난 글쓴이의 혐오감은 [B]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겸손한 반성으로 전환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공간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간에 대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공간 내 특정 대상의 속성으로써 그 대상이 포함된 공간 전체를 표상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공간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이루는 공간에는 작품에 명시된 공간은 물론 그 이면에 전제된 공간도 포함된다.

- ① (가)의 '신선 골짜기'는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서, 이에 대비되는 곳으로 '백 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이 이면에 전제된 것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나)의 '낮은 다리'는 '주가'와 '온 꼴'이라는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여,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가 돌아온 곳은 '어지럽고 시끄러운 문서'로 표상되는 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이대도록 시원하랴'와 같은 반응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푸른 물이 그득히 담긴 못가'는 글쓴이가 '삼매경'에 빠지기를 기대하는 곳으로, 글쓴이가 자신의 지향과 직결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⑤ (다)에서 '내 서재'는 '심사 틀리는 소식'을 피하기 위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율화가 터져 나온다'고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겠군.

국어 영역

[6월 모평]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1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2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저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김기림, 「연륜」-

(나)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짜게 사서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끌거리는 불 속에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가)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아이 우 => 꿈 꾸기 좋음

섬으로 가자

불꽃처럼 열렬히 살고 싶음

(나)에서 '내'가 느끼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스카

내가 플라스틱처럼 느껴짐

(버스에서 뛰어내림)

대장간 나 => 호미, 낫

삶 느낌상 풍일때

나는 어딘가에서 걸려 있고 싶다
호미, 낫

국어 영역

33. (가), (나)의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열렬히'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방한다.
- ② (나)에서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부각한다.
- ③ (나)에서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 있음을 부각한다.
- ④ (가)에서 '날로'는 부정적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나)에서 '당장'은 당면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절박감을 강조한다.
- ⑤ (가)에서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화자의 동질성을,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 동질성 vs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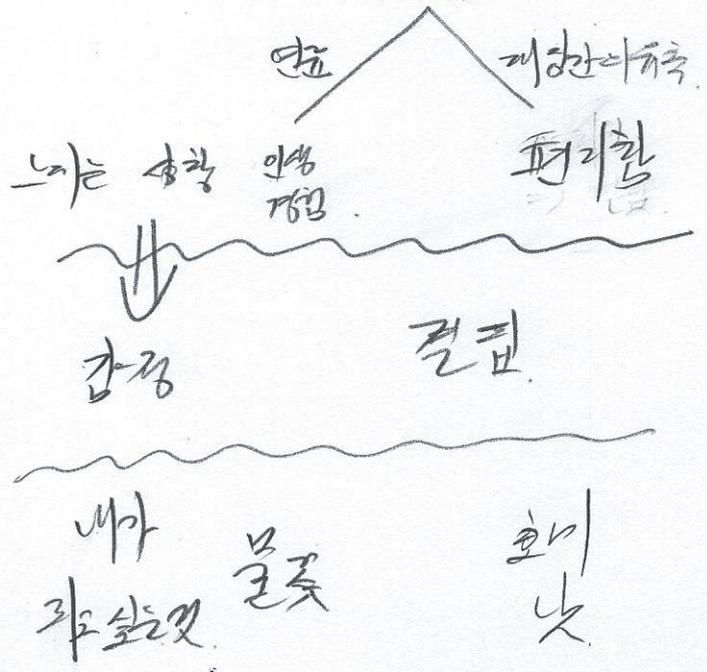
라카르
어린 것 같다
"강위성"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연륜'은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 ① (가)에서 '서른 나문 해'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풀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지금은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일상에서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 있고 싶다'고 표현한 것은,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물의 상태가 되고 싶다고 진술함으로써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 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화자가 결핍을 느끼는 공간으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층층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곱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 않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열리어 닝닝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주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정정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뒫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갈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사치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증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뻗뻗뻗한 달갈귀신이 울음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 * 지손: 맏이가 아닌 자손에서 갈라져 나간 파의 지손.
- * 신주: 죽은 사람의 위패.
- * 뒫밥: 고사나 제사를 지낸 후 객귀를 위해 차리는 상.
- * 모말굴림: 곡식을 담은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리는 형벌.

(나)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처용이 밤늦게 돌아와, 노래로써
 아내를 범한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했다지만
 막상 목청을 떼어 내고 남은 가사는 [A]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B]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이 덧나
 다스리는 처방은 이야기일 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가) 확인 가능한 사건을 정리해보자.

[옛날]

제삿날

= 식감권이 보임

종이식감권

[지금]

(아바도 할아버지 아버지?)

작인이 세 고리대금일함

작인
의금함

(나)에서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확인해보자.

⇒ 노래의 권 이야기 (처용)

⇒ 노래

누구 시의 음악은 듣지 않음

나

- 노래 하고 싶음
⇒ 심장 박동 뭉뚱

나

의 상처 - 노래이 쉽게 잊남

나

는 이야기로 시를 쓴다

⇒ 시 = 이야기 + 노래

국어 영역

28.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데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 ②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이'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
-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데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을 드러낸다.
-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 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데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⑤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찻찻거리'는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데서, 종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낸다.

29.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 ② [A]는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 ③ [B]는 시인의 '말'에 '이야기'가 ~~직접~~ 연결된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 간접
- ④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 상황을 보여 준 것이다.
- ⑤ [A]는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를, [B]는 '노래'의 회복이 지닌 의의를 설명한 것이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이다.

-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결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불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 ④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간접 극복을 위해
사용함]은

[브리]와 라르라.

국어 영역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나 어느 입이 날 쫓소나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셋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땀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도히 풀쳐 해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둘러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쳐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셋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댕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굵이굵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일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 허난설헌, 「규원가」 -

*다시: 시기가 많음.

*면목가증: 얼굴 생김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태가 있음.

(나)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들흔더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입 그려 우는 눈물은 옮겨니와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좇아서 후무룩 비쪽 하나니

- 작자 미상 -

(가)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자.

[A] → ㉠ 꿈같이 만나 있어

[B] → (시각이 지남) 비경

→ 관음(觀音) + 수문(水門) 생각만 많이 읽

녹기금을 연주함

(나)에서 '내'가 느끼는 것과 보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나 → 소나무
 버들

움푹
나뭇잎 입이 그려움
 흔들거림

3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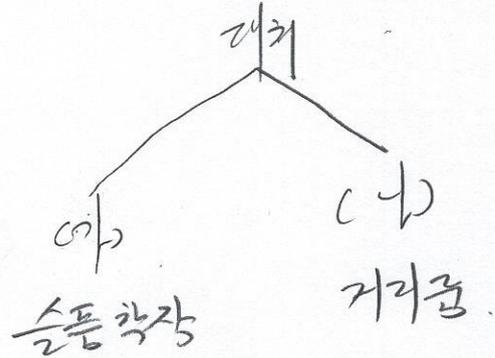
- ① ㉠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다.
- ②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은 임파의 만남에 대한 기대에서, ㉡은 임파의 이별에 대한 망각에서 비롯된다.
- ④ ㉠은 이미 일어날 일에 대해 회상하고,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 ⑤ ㉠은 인연의 우연성에 대한, ㉡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한 화자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 ① (가)에서 '실습이 상에 올 재'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 ④ (가)의 '삼춘화류'는, (나)의 '머들'과 달리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군.
- ⑤ (나)의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는,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화자가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을 보여 주는군.



"거부" 세가 한 지고,
 "한잔" 네의리/사관이 있어 된다.